

II. 주전문적 사회풍토

安秉煜 / 숭전대 교수·철학

이런 풍토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는 ‘죽일 자’와 ‘죽어야 할 자’가 너무 많고, 이쪽에 맞고 저쪽에 당하고,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깨진 부상자들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사회정화추진위원회는 건전한 사회기강 조성보다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하여 오늘을 움직이는 지성인들의 새로운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주옥같은 글들을 모아 앞으로 씨리-즈로 게재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 사회정화위원회

대체 무슨 까닭일까. 정치판에서부터 길거리의 싸움판에 이르기까지, 학원 상황에서 국회와 노동 현장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는 온통 강경과 대 강경과의 격돌이 판을 치러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조(朝鮮朝)의치 사화(史話)에서도 엿볼 수 있고 요즘의 정계와 문화계, 사회 부문에서도 매일같이 목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온건파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숫적으로는 온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 다만 그런 이들은 여러가지 이유로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 뿐이다. 왜? 강경과끼리 「성정(聖戰)」을 벌이고 있는 판에, 선불리 주화론(主和論)이나 합리론(合理論)을 폄하하는 양극단의 동시 협공을 받아 중간에서 넘치가 되기 십상이겠기에.

최근 며칠 사이에 있었던 정계의 소란을 두고 보아도 이 점은 명백히 드러난다. 여·야의 전투적 주전문자(主戰論者)들은 마치 오기와 알통 경쟁이라도 벌인다는 듯이 다투어 백병전적(白兵戰的) 발언들을 떠뜨렸다.

한쪽에서 논리적-실증적 발언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신념적인 공격 포화를 퍼부으면, 또 한쪽에선 국회고 뭐고 집어치우고 당장 전투복으로라도 갈아 있어야겠다는 투로 격한 「명군」을 불러냈다.

이러 용맹무쌍한 전사적(戰士的) 돌격전이 불을 뿜을 때는 아무도 신중론이나 온건론을 펼 수가 없게 된다. 그렇게 했다가는 혹시 유약하다거나 충성심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투지가 박약하다는 비난을 들을까 두려워서다.

그래서 그 조직 내부에서 「순도(純度)」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투어 내가 질세라, 한술 더떠서 고풍을 지르고 핏대를 올려야 한다. 집권측에서 초강

경 진압론이 압도적이 되면, 그 반대쪽에서도 온건론은 설 자리를 잃는다. 가면 갈수록 극한 투쟁과 와 결사투쟁과가 우세해지고, 온건파는 자칫 「사꾸라」란 중상을 받을까 보아 입을 닥치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다.

오늘날 학원 내부에도 이런 양상은 심화되어 있다고 한다. 학생들 내부에는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유신(維新) 이래 특히 70년대 후반부터는 이른바 급진파가 운동의 헤게모니를 쥐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의 방법론에 대해 많은 학생과 교수들은 전폭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그에 대해 공연한 논쟁적 비판은 가하지 않는다. 까닭은 온건파의 권위가 서지 않기 때문이다.

권력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바가 많은데, 그것은 내놓고 비판 못하면서 급진파만 나무라면, 도덕적 공신력을 잃게 될까 우려해서란 이야기다. 딱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이다.

문단에서도 이 점은 비슷할 것 같다. 문인들 가운데는 권력에 대해 할말이 많으면서도 「민중문학론(民衆文學論)」에는 또 선뜻 동조하지 않는 인사(人士)들이 많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민중문학론」에 대해 좀처럼 공연한 비평을 제기하려 하지는 않는다. 이들 역시, 그렇게 했다가 혹시 「사꾸라」 소리를 들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권력 측은 학원이나 문단, 지성계의 이런 곤혹을 두고, 지성인이 왜 그렇게 비판할 바를 당당히 비판 못하느냐고 힐문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다. 지성인이 무슨 힘이 있기에 동시에 이쪽 우박도 맞고 저쪽 우박도 자청하란 말인가. 그러면 권력 측은, 권력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고 오로지 급진파만 나무랄 것을 바라겠지만, 그렇게 일방적

으로 해가지고는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는 점을 제발 알기 바란다.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대도시의 식자층이 등을 돌린 것이다.

이런 식으로, 권력 층과 반대 측에서 온통 강경론과 주전론(主戰論)만 관을 쳐가지고는 이 나라의 정치는 무엇 하나 제대로 풀어나갈 길이 막연해짐을 심각히 개탄치 않을 수 없다.

비단 정계나 문화계에서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종교 분야에서도 강경론이 우세하지 않은가 싶다. 타교파나 타종파에 대해선 마치 악신(惡神)이나 사탄처럼 적대시해야만 열성신도가 되는 양 착각한다. 길거리에서 차를 몰 때도 상대방에 대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서로 다투어 차머리를 먼저 들이밀려 야단들이다.

버스에 오를 때도 서로 먼저 오르려고 신사체면 숙녀체면 아랑곳이 없다. 어쩌다가 토론이 붙으면 서로 목청을 더 높이려고 안간힘들을 쓰고, 마치 난폭하게 구는것이 곧 이기는 길인양 다투어 무례(無禮)경쟁을 벌인다.

이에 따라 언어의 인플레이와 형용사의 인플레이현상이 가속되었다. 가장 원색적이고, 가장 투박하고, 가장 직정적(直情的)이어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양, 무슨 비난을 던질 때면 상대방을 아예 싹도 없이 뭉개버리겠다는 듯이 극한 용어로 욕박지른다.

이래서 토론은 이내 원래의 논점이나 본질 해명을 떠나 엉뚱한 말꼬리 시비로 번지고, 그것은 다

시 감정적인 원수관계와 앙숙관계를 만들어내서, 문자 그대로 불구대천의 관계로까지 질주하는 수가 많다.

이러한 풍토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는 '죽일자'와 '죽어야 할 자'가 너무 많고, 이쪽에 맞고 저쪽에 당하고, 이렇게 터지고 저렇게 깨진 부상자들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양쪽의 강경파 외에는 살아남을 자가 없지 않을까 적지 걱정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회엔 아직도 합리적인 사람들이 더 많다고 확신한다. 이들이 지금은 침묵하고 있지만, 사회가 더 다원화될수록 그 비중이 커지리라 확신한다. 이들의 비중이 커질수록 양극의 강경파와 주전파는 가장자리로 밀려날 것이다. 그리하여 이쪽에서도 온건파가 커지고 저쪽에서도 온건파가 커져서 그 양쪽 온건론 사이의 페어플레이가 이 사회를 합리적 토론장에서 평화롭게 발전시켜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태는 물론 앙숙관계의 원죄적(原罪的) 사유가 일단 처리되지 않고서는 오기 어렵다. 그 사유를 집권측은 술선 이니시어티브를 쥐고서 정면으로 풀길을 강구해야 한다. 묻고, 숨기고, 쉬쉬하고, 마이크를 꺼버리고, 일방적 캠페인을 벌이는 고식적(姑息的) 방법으로는 근본치유가 되지 않는다. 낱눈으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소아적(小我的) 집착에서 벗어나 대국적인 매듭풀기에 용기가 있어야 한다.

다음號：「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海外僑胞 同僚齒科醫師에게 協會誌 보내기運動 展開

齒協에서는 海外에서 診療에 臨하고 있는 同僚 僑胞齒科醫師에게 協會에서 發行하는 協會誌 보내기를 勸奨하고 있습니다. 海外에 居住하는 先後輩 또는 同僚齒科醫師에게 協會誌를 送付하고자 希望하시는 會員은 아래 事項에 依해 申請 해주시기 바랍니다.

送 料：

地 域	送 料
美 国	2,550원
英 国	2,550원
独 逸	2,550원
日 本	1,610원

申請할곳：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국